

탈(脫)신체적 패션 디자인에 관한 고찰

- 몸과 유리된 고정 공간의 형성을 중심으로 -

임 은 혁

SADI 패션디자인과 조교수

Transfiguration in Fashion Design

- Focused on Stationary Space Isolated from the Body -

Eun-Hyuk Y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DI(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2006. 11. 16 투고)

ABSTRACT

Clothes and human body are inseparably related.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body determines the form of clothing, reflecting the time and culture as well as the individual and society. Clothes can even reorganize the meaning of the body, while transcending their instrumental functions of protecting, expanding and deforming the body.

Using 'body' to analyze the clothing form, my study develops a framework by which to classify transfiguration in fashion design. In order to inquire the formative style and aesthetic values expressed in transfiguration in fashion, my study examines subjects from the discourse on the body to the fashion collections of the late 20th and 21st centu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ransfiguration signifies absence of body which questions the three dimensional construction of the body in more conventional clothing system. Transfiguration is expressed in non-figural forms which implies metaphorical plasticity and abstract extensity. Transfiguration in fashion stresses a will-to-form rather than mere bodily proportion and structure, which explores trans-extensity that goes beyond the boundary of the body. Ultimately, this phase also betrays the correspondence between signifiant and signifié in sartorial convention.

Aesthetic ideal of the body is visualized in the form of a dress. Some clothes prioritize the body, particularly the feminine bodily curves, while others focus on the clothing itself as abstract and sculptural forms. Fashion continues to explore forms and images that transcend the traditional representations of the clothed body. As a type of intimate architecture, fashion always mediates the dialogue between clothes and body, or fashion and figure. My study suggests a framework to analyze bodily representation in transfiguration in fashi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thes and body.

Key words: body(몸), transfiguration(탈신체화), metaphorical plasticity(은유적 조형성), abstract extensity(추상적 공간성)

Eun-Hyuk Yim, e-mail: eunhyuk@hotmail.com

본 논문의 완성도 제고에 도움을 주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I. 서론

복식은 몸에 직접 걸치는 건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몸의 형태에 조응 하거나 거슬러 작업하면서 얻어지는 공간적인 인식에 의한 환경을 만든다. 어떤 복식은 초현실적인 비율로 몸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하고, 어떤 복식은 몸을 한정 짓고 지탱하는 기술을 통해 몸을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서구복식은 이상미와 조화를 이루는 몸을 형성하기 위해 부피와 양감에 의존해왔다. 의복이 몸의 윤곽선에 밀접하게 가까워지면 몸의 형태를 강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코르셋, 뷔스티에와 패딩은 몸의 자연적인 형태를 강조하기 보다는 이상화된 형태로 다듬고 조각하는 장치이다. 어떤 복식은 몸의 윤곽을 가장하기 위해 건축적인 비례로 전체적인 몸을 둘러싼다. 이러한 탈신체적인 의상을 디자인하면서, 디자이너는 패드의 삽입이나 부피의 확장을 통해 몸의 경계에 대한 개념을 무시하고 몸을 확장한다. 때로는 몸과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기하학적인 형태로 완성되기도 한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와 같이 몸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탈피하는 패션이 주목 받고 있다. 이는 결코 독자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시대의 사유 및 문화의 변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복식은 의복을 입는다는 몸의 실천을 통해 의복으로 해석되는 몸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낸다. 복식만큼 몸을 즉각적으로 재현하는 문화현상은 드물며, 따라서 복식 연구는 문화연구 전반에 있어 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학문분야에서의 몸에 관한 폭발적인 관심은 패션과 복식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는 자극이 되고 있다.

복식은 남들이 쳐다보는 제 2의 몸으로, 자아를 몸으로부터 찾는 사람들은 복식을 자기표현의 중요한 매체로 생각한다. 따라서 몸은 자아의 환경을 형성하며 자아와 분리될 수 없다. 패션 연구에서 로치와 아이커(Roach & Eicher)는 의복을 '가시적인 자아'¹⁾라고 하였으며, 데이비스(Fred Davis)²⁾는 의복은 언어와 유사한 형태의 코드이며 자아 정체성을

전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버만(Kaja Silverman)³⁾에 따르면 의복은 몸이 문화적으로 보이게끔 몸을 그려 내고 있고 의미 있는 형태로 그것을 표출해 준다. 의복은 몸을 표출함으로써, 영혼도 동시에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복식을 몸에 관련하여 고찰하여 복식이 움직이는, 현상적인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와 유리되어 고정된 공간을 형성하는 탈(脫)신체적 디자인의 복식을 몸과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신체행위(bodily practice)로서의 복식 개념을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틀로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탈신체적 패션 디자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복식과 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불완전한 몸을 받아들이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탈신체화의 개념을 밝히고 그 조형적 특징과 미적가치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기존의 복식뿐 아니라 새로운 복식형태와 이미지를 분석하는 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신체적 디자인을 미학적 관점을 통해 고찰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한다. 첫째, 복식과 몸에 관한 개념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여 탈신체적 패션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복식에 나타난 탈신체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행한다. 둘째, 탈신체화가 현대 복식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실제 작품을 사례로 들어 분석하는 연구를 병행한다.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시점은 현대 패션에서 탈신체적 디자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 이후 최근의 여성복 패션이며, 복식사를 통한 문헌 연구와 함께 패션 및 복식사 관련 서적, 오트 쿠튀르와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지에서 얻은 여성복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실례들을 내용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행한다.

II. 복식에 나타난 탈신체화

몸에 대한 관심은 19세기와 20세기 이론과 담론에서 끊임없는 주제가 되어 왔으며, 최근 문화적 담론에서 화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대중문화의 확산, 페미니즘의 활기와 물신주의 팽배는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왔고, 이러한 시각은 패션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⁴⁾

몸에 관한 담론의 출발점으로는 데카르트(Des-cartes)의 철학적 숙고의 핵심인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들 수 있다. 데카르트에게는 인간의 육체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감각의 말단에 불과했다. 몸은 방해자이자 이단으로서 마땅히 소외되고 추방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제 몸은 정신의 억압에 반하는 치유로서 담론의 중심으로 되돌아왔으며, 식상한 관념주의에 반하는 구체적 물증⁵⁾으로 자리잡았다. 몸과 정신의 불가분이라는 일원론으로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부정되었고, 몸은 자아에 대한 상징화의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으로 복식은 몸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왜곡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점점 몸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몸의 의미를 대신하기도 한다. 현대의 많은 이론가들은 몸은 이제 자아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몸을 통해서 개인들은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소비문화에서 개성이 강조되면서, 몸은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순응하는 변형 가능한 존재양식으로 간주된다.

몸이 인간의 존재를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활동을 표현이라고 한다면, 몸은 근본적으로 복식을 통하여 표현된다. 표현이 이루어지는 존재론적인 바탕이 매체임을 감안하면, 복식과 몸과의 관계는 상호 매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벨(Quentin Bell)의 “직물은 몸의 자연적인 확장이며, 또는 영혼의 확장이기도 하다”⁶⁾라는 언급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복식은 몸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식은 착장을 통해서 인간의 몸과 함께 시각화 되고 가치를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옷을 몸의 일부이자 정신의 일부인 듯 여긴다.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의복은 피부의 확장이다”⁷⁾라고 주장함으로써 뒷받침했던 것처럼, 복식에 신체외식이 확대되면서 점차 그것을 실현하려는 듯한 복식이 나타났다. 복식은 정신의 표현이라고 볼 때, 몸과 정신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이제 보이는 대상은 바깥의 옷이 아니라 몸 그 자

체가 되어, 복식과 몸의 이미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몸의 인식은 자기인식(self-awareness)과 분리될 수 없으며 자기인지(self-recognition)의 변경(邊境, frontier)을 나타낸다. 이 인식은 무의식적이며 몸의 경계(body boundary)의 가설적 구성에 의해 묘사된다. 우리가 신체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은 자기의 심리학적 인식의 윤곽을 그리는 심리학적 현상으로서의 몸의 경계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⁸⁾ 몸의 경계는 필연적으로 모호한 경계이며,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이유에서 개인은 각자가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 몸의 경계로서의 복식은 모호성을 띠며, 모호성은 공식과 정의로는 표현해 낼 수 없고 형식화하거나 인간이 검증할 수 없는 것이다.

복식의 역할은 자기와 비자기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閾, threshold)인 몸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몸-복식의 역의 모호성은 패션의 과정을 가속화하며, 몸의 경계는 자기의 경험과 복식을 통한 자기 경험의 표현 사이의 접점을 나타낸다.⁹⁾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식확장의 장으로서의 몸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복식을 몸의 확장으로 보고, 몸과 복식을 상호 매체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몸의 일차적 모형은 인위적인 이차적 모형을 위한 최초의 조형성을 의미한다. 복식은 다양한 형태와 소재, 그리고 일차적인 몸의 형태 위의 변화하는 볼륨을 통해 전개된다. 이차적 모형의 형태는 착용자에게 사회적이고 동시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조직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 모형인 복식이 몸의 신체적 특징과는 무관하게 복식 그 자체로 고정된 공간으로 표현되는 탈신체화 현상을 탈신체적 패션 디자인의 개념적 근거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복식에서의 몸은 정체성의 혼란과 부재의 문제를 다루는 근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 몸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조작과 변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변모하였으며, 매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상업적·의학적·성적 대상으로 위상을 바꾸었다. 나아가 이제는 유전적 조작마저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인간의 몸의 자연적

정체성은 그 위기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한다.

복식에서도 기존의 복식 형태와 입는 방식을 부정하는 새로운 의미의 표현과 전달방식이 등장하였다. 복식은 이러한 의미전달 체계로 사용되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조작과 변형을 통해 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는 푸코가 주장한 '억압된 지식의 반란'¹⁰⁾이 아방가르드로의 집중화와 글로벌화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문화에서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고, 이는 예술, 과학, 그리고 패션에서 나타났다. 복식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편의주의보다는 자율을 향한 불변의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중문화와의 연계를 재구성하면서 차별적인 힘을 강조했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는 피부의 확장으로서의 복식의 기능에서 떠나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체로부터 추상화되어 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라는 공간을 넘어선 탈신체적인 패션은 복식에서 이상적인 신체의 모습과 구조에 대한 시각적인 유사성의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복식에서의 기표와 기의의 일치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몸의 부재를 의도한 탈신체적 복식은 과거에서와 같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여성미를 재현하기 위해 사실적인 몸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복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여성복식에서 인체구조의 외형상의 성차를 드러내지 않아도 됨에 따라, 복식에서의 전통적인 기표와 기의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해체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복식은 하나의 표현의 장으로 간주되어, 인체의 비례와 구조보다는 디자이너의 조형의지가 중시되며, 인체의 구조나 동작이 최우선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서구복식에서의 기표와 기의는 일치하지 않게 됨에 따라, 복식의 기능 및 복식을 착용한 신체의 기능을 박탈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탈신체화의 경향을 나타내는 복식은 복식이 몸의 사실성의 재현에서 점점 이탈하여 점차적으로 신체적 특징이 사라져 몸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해진 결과, 하나의 조형적인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복식 형태와 입는 방식을 부정할 뿐 아니라 복식과 몸 사이의 관계를 떠나 복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복식을 고립시켜 추상적이고 조각적인 형태로 간주하는 몸의 형태와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는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신체적 디자인에 관한 고찰

전통적인 재현방법을 넘어서 자유로운 형태를 탐구하는 탈신체적인 복식에서는 몸 보다는 복식 자체의 형태적인 특질에 초점이 맞춰져 인체와 유리된 공간이 형성된다. 복식에서의 탈신체성이 자주 '개념적인' 아방가르드 패션과 연관이 되지만, 이는 또한 오트 쿠튀르 의상에서도 자주 표현되었다. 발렌시아가(Christobal Balenciaga) 등 상당수의 쿠튀리에들은 복식에 대한 추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에게 드레스는 일종의 조각이었으며, 입체적 재단을 위해 캔버스, 그물,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보강재를 사용하였다.

물리적인 공간과 소재의 새로운 표현의 탐구에 의한 의상들은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패션에 적용된 건축의 패러다임은 아방가르드 패션의 형태와 최신 디자인을 범주화하는 새로운 시각 언어가 되었다.¹¹⁾

예술에서의 추상화가 기하학적 추상, 생물 형태적인 추상, 그리고 추상표현주의를 포함하는 것처럼, 패션 디자이너 또한 추상에 접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는데, 이들은 착의의 신체에 대한 전통적인 재현방법을 넘어서는 형태를 탐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체 위에 정지된 부피를 가지며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복식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비재현적 복식은 추상적인 외형을 통해 일반적으로 복식 자체가 조형적 정지 부피를 가지며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정지 공간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전통적인 서구 복식의 대상으로서의 몸의 개념이 부재하는 복식에서, 몸을 포함한 주위의 공

간은 화가에게 캔버스와 같은 의미로 디자이너의 표현의지를 담는 장으로 나타나며, 전체적인 몸의 실루엣에서 이탈하여 인체라는 공간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인다. 자인히 각 인체 부위에 해당하는 복식 부분은 서로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부위의 전통적인 상징성과는 일치하지 않게 되며, 전체적인 복식의 실루엣을 중심으로 은유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인체와 유리되어 고정된 공간을 형성하는 건축적 특징을 나타내는 복식을 탈신체적 디자인이라 정의하고 그 조형적 특징과 미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탈신체적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

현대 조형예술에서는 원근법, 비례, 미술 해부학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형태, 공간, 양감표현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 보다는 예술가의 조형의지가 중시된다. 특히 보는 이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예술가의 주관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이나 비례, 공간 질서를 만드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 조형에 있어, 물체의 형상이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변형이라고 한다.¹²⁾ 즉, 회화나 조각에서 물체의 형태나 색을 있는 그대로 베끼지 않고 자기의 미의식을 통하여 해체하여 원형과는 별개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원형으로부터 절연(絶緣)되는 것은 아니다. 변형을 통해 기하학적 추상을 형태화 하여 창조적인 조형 방식을 추구하며, 모든 재현적 요소를 거부하고 회화적인 공간으로 대상을 분해하여 새로운 기호체계를 전개하게 된다.¹³⁾

복식에서는 인체의 물리적 구조의 상징적 파괴에 의한 변형미를 추구하며, 입체미의 조형적 표현을 통하여 복식 속의 인체라는 내부구조를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인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식미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탈신체적 디자인은 복식의 본질적인 형태개념을 부정하며, 인체형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은유적으로 표현되거나 기하학적 단순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탈신체적 패션 디자인은 인공적 혹은 자연적 형상을 상징하는 모조물을 통해 사물의 형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순한 조형으로 제시되거나, 형태

적 예술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몸을 매개체로 3차원적 공간에서 몸과 일치되지 않는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형성함으로써 추상적인 형태의 입체적인 기하학적 조형을 통해 표현된다.

인간의 몸은 복식의 공간유형을 결정하는데, 이 공간은 몸과 밀착되기도 하지만 몸과는 별개의 공간을 형성하기도 한다. 몸의 실루엣에서 이탈한 기하학적 형태는 추상적 실루엣을 통해 순수한 공간의 느낌을 전달하므로, 이미지 전달이 빠르고 시각적으로 강렬한 효과를 유발한다.¹⁴⁾ 복식에서의 기하학적 형태의 표현은 확대와 축소를 통한 과장, 형태의 왜곡이나 파괴 그리고 추상적 형태로 표현되어 균형과 대칭에서 벗어나 시각적인 낯설고 이질감을 전달한다. 복식에서의 몸의 존재와 부재는 기호로서의 의미작용을 하는데, 몸 이미지를 벗어나 탈신체성을 제시하는 복식은 실제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호체계로 작용하므로, 인체나 동작이 최우선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으며 추상성이 우선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패션은 조형적인 형태의 측면에서 건축적인 디자인이라 표현될 수 있는데, 건축적이라는 것은 밀뱅크(C. R. Milbank)¹⁵⁾가 디자이너들의 의상의 외적 형식을 분류한 범주 중 하나로, 구조적이며 인체의 형태와 관련해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능력이 있어 인체의 형태를 추상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창조한 디자인을 말한다. 밀뱅크가 분류한 '건축가(The Architects)'들은 인체의 형태를 추상화하고, 그 형태에 관련된 방식으로 실험하는 재단법에 통달한 디자이너들로, 발렌시아가와 찰스 제임스(Charles James) 등의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재단법과 구성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들은 테일러링의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건축적인 원칙에 의해 의복을 디자인하며, 인체 비례를 재분배하는 부피와 구조를 통해 명확하고 조각적인 외관을 형성하여, 평면적인 형태에서부터 복잡한 3차원적인 형태로 확장시킨다. 건축적인 재단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본적으로는 허리선을 완전히 해방시켜 몸의 실루엣의 중요한 초점에서 이탈한 조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신체적 디자인의 조형성을 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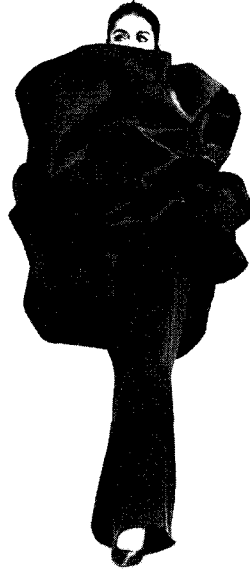
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의 구체성과 추상성을 중심으로, 인공적 혹은 자연적 형상을 상징하는 모조물을 통해 사물의 형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은유적 조형성과 실재하는 어떠한 형상과도 연관을 갖지 않는 추상적인 조형으로 제시되는 추상적 공간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은유적 조형성

대표적인 건축적 패션 디자이너인 발렌시아가는 1950년대 말에 들어 파운데이션이라는 내부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재단만으로 조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복식형태를 만들어냈다. 형태에 관심을 가졌던 디자이너 발렌시아가는 최소한의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장식으로 건축적인 효과를 달성하는데 뛰어났다. 특히 단순한 라인을 위해 모든 불필요한 디테일을 거부하는 구조적 단순성과 절제미의 외적형식을 창조하였다. 발렌시아가에게는 개별적인 몸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했다. 발렌시아가는 의복의 구조 자체가 예술작품이 되도록 형태를 추상화하였으며, 그의 의상은 엔지니어나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된 작품과 같이 고정적인 형태를 지녔다.

발렌시아가의 의상에서는 몸의 움직임보다는 몸의 주변에 3차원적인 공간을 형성한 건축적인 고정된 형이 인지되고, 다른 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복식의 은유성을 지닌다.

발렌시아가는 실크 게이자(gazar)와 같은 뽀뽀한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 위에 정지된 부피를 가지며 몸의 움직임에 따라 복식의 형태가 유동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정지 공간 구조로, 복식 자체의 건축적 조형성을 빌어 인체미가 정적으로 표현되는 복식 우선형의 시지각적 형태¹⁶⁾를 나타냈다.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은 치밀하게 구성되어 몸을 압박하지 않는데, 이는 그의 특징적인 과감한 형태를 지탱하기 위한 오간자(organza) 안감과 공기층에 의한 빈 공간과 함께 구조된 볼륨에 의한 것이다. 그의 디자인 중 상당수는 그 부피로 몸의 윤곽선을 완전히 가리는데, 예를 들어 <그림 1>의 양배추 꽃 모양의 'Le Chou Noir' 케이프는 바이어스 튜브 형태로 봉제된



<그림 1> Balenciaga, 1967년. Martin, Richard(1988). *Fashion and Surrealism*. London: Thames and Hudson, p. 179.



<그림 2> Theyskens, 1999년 F/W. Derycke, Luc & Van de Veire, Sandra (eds.)(1999). *Belgian Fashion Design*. Amsterdam: Ludion, p. 229.

실크 게이자의 긴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원단은 토르소 주위로 주름을 만들어 머리를 제외하고 모든 신체부위를 감추며, 부분적인 스티치로 꽃잎과 같은 주름을 만든다.

1990년대 이후의 컬렉션에서도 탈신체적인 의상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쿠티르의 불문율을 해체하여 자신만의 이미지로 재결합하는 올리비에 데이스켄스(Olivier Theyskens)는 1999년 F/W 컬렉션에서 몸과 어떠한 연관도 갖지 않은 볼륨에 관한 작업을 하였다. 그는 “올해 나는 볼륨에 관한 작업을 했다. 이러한 볼륨은 몸을 둘러싸는 덩어리이므로 더 이상 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¹⁷⁾고 하였다. <그림 2>의 의상에서 데이스켄스는 오비의 형태를 가져와 허리뿐 아니라 전체 토르소의 흔적을 감추도록 고리로 둘러쌌다. 그 결과 'Le Chou Noir' 드레스와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발렌시아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패션은 반드시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무엇일 필요가 없으며, 패션은 이미지이다”¹⁸⁾라고 한 빅터 &



〈그림 3〉 Viktor & Rolf,
2005년 S/S.
www.vogue.co.kr



〈그림 4〉 Viktor & Rolf,
2005년 F/W.
www.vogue.co.kr



〈그림 5〉 Givenchy
Couture, 1997년 F/W.
Koda, Harold(2001).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41.



〈그림 6〉 Chalayan. Quinn,
Bradley(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Oxford: Berg, p.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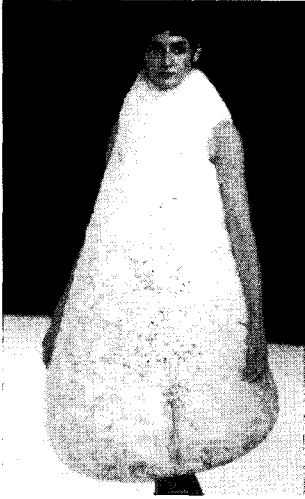
롤프(Viktor & Rolf)는 2005년 S/S 컬렉션에서 몸을 커다란 검은 리본으로 포장과 같이 감싸 하나의 오브제로 표현하였고(그림 3), 2005년 F/W 컬렉션에서는 목 부분에 레이스로 장식된 베개와 접이용 담요를 끼워 넣은 코트를 통해 잠에서 막 깨어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그림 4). 이 컬렉션에서 모델들은 트리밍과 프릴로 장식된 이불과 커다란 칼라가 달린 듀베(duvet) 코트, 퀴트로 만들어진 슈트와 이브닝드레스 속에 마치 잠옷과 같은 슈미즈를 걸치고 있었다. 이 의상들은 침구로 표현되어, 몸의 개념뿐 아니라 복식의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

이러한 탈신체적인 복식은 패드 등의 삽입에 의한 부피의 확장을 통해 몸의 경계에 대한 개념을 무시하고 몸을 확장하며, 때로는 몸과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면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룬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몸을 원반이나 후프 모양으로 재해석하면서 어깨의 축이나 엉덩이의 자연스러운 자세를 과장시킴으로써 몸의 구조를 확장하였다.

고전적인 여체의 실루엣에서 완전히 이탈한 의상들은 맥퀸의 컬렉션에서 종종 발견된다. 1997년 컬렉션에서 앞을 뻗치게 만든 맥퀸의 깃털 소재의 텐트는 딱 붙는 모자와 발굽과 함께 착용되어 확실히

조류와 같은, 어렵듯이 파충류와 같은, 그리고 어찌 보면 포유류 같아 보이는 공상적인 혼성화(pastiche)를 제시한다.¹⁹⁾ 맥퀸은 패션쇼를 스펙터클의 매체로 사용하며, 디자인을 몸과 정체성에 관한 논쟁에서 자극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림 5〉의 맥퀸의 코트는 위장용으로 두꺼운 폴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마스크를 쓰고 춤을 추는 아프리카의 멘데(Mende) 문화의 의식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²⁰⁾ 그는 마스크 대신 풀을 몸을 감추고 덮는 효과를 내는데 사용하였다.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은 몸의 움직임보다는 몸의 주변에 3차원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건축적인 고정된 형을 추구하는데, 〈그림 6〉의 둥근 천장 형태의 시스(sheath)는 클로이스터와 성당의 건축을 재현한 중세 수도복의 윤곽선을 떠올리게 한다. 이 의상에서 몸은 확연하게 교회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건축적인 비례로 은폐된다. 〈그림 7〉에서 살라얀은 핑크색 툴을 잘 다듬은 막자 모양의 정원수처럼 형태화하였다. 턱 높이의 네크라인과 어깨 사이의 경사에 채워 넣은 부분으로 인해 머리는 몸



〈그림 7〉 Chalayan, 2000년 S/S.
Koda, Harold. *op. cit.*, p. 88.



〈그림 8〉 Balenciaga, 1967년 S/S.
Koda, Harold. *op. cit.*, p. 90.



〈그림 9〉 Ralph Rucci, 2003년
가을, *She's Like a Rainbow*,
Color & Fashion 전시
카탈로그(2005), 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p. 114.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며, 드레스의 형태가 가슴 위 지점에서 밖으로 퍼지므로, 토르소의 윤곽을 전혀 알아 볼 수 없다. 복식에서 허리가 은폐될 때는 가슴과 엉덩이도 종종 위장되는데, 이 의상에서 머리와 사지를 제외한 몸은 조각적인 형태를 띤다. 복식과 몸의 에로틱하면서도 비판적인 잠재성을 탐구해온 살라얀은, 소녀의 파티복의 전통적인 소재인 핑크색 툴과 러플의 테크닉을 사용하여 몸의 윤곽을 불확정적이고 무성(無性)의 형태로 융합함으로써 여체의 잠재적인 성적 효과를 약화시켰다.²¹⁾

2) 추상적 공간성

디올(Christian Dior)의 뉴욕과 정반대로, 발렌시아가의 실루엣은 구조적인 인공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테일러링 방식에 의한 것으로, 발렌시아가의 의상은 몸과의 관계에 있어 항상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건축적인 실루엣을 이루었다. 발렌시아가의 의상은 종종 몸이 가늘어지는 부위나 몸의 곡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추상적인 실루엣으로 이루어지며, 복식과 몸 사이의 여분의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의 의상은 몸을 보정하기 위

한 속옷을 필요치 않는 편안함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발렌시아가의 가장 인상적인 의상은 피라미드, 사다리꼴, 또는 타원과 같은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의 가장 뛰어난 볼륨의 표현은 〈그림 8〉의 1967년 컬렉션의 웨딩 가운이라 할 수 있다. 두 배의 폭을 만들기 위해 두 장의 천을 봉제하였으며, 어깨의 두 곳과 뒷중심의 한군데의 단지 세 개의 구성선으로 구성되었다. 신부가 걸을 때 가운은 원뿔형태로 부풀게 된다.

최근의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발렌시아가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랄프 루치(Ralph Rucci)를 꼽을 수 있다. 미국 디자이너로는 멩보셰(Mainbocher)에 이어 두 번째로 파리 오트 쿠튀르에 초청된 디자이너인 랄프 루치는 최고급 소재만을 고집하며, 그의 의상들은 조형적 구성과 곡선형태의 봉제선을 특징으로 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종종 일본 전통복식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파고다 인판타(Pagoda Infanta)’〈그림 9〉는 등 부분이 높게 선 이브닝 드레스로 오비가 기모노를 감싸는 형태를 연상시킨다.

최근 복식에서의 탈신체적 경향의 대표적인 디자



〈그림 10〉 Arkadius.
Quinn, Bradley, *op. cit.*, p. 6.

이너로 맥퀸과 살라얀을 꼽을 수 있는데, 맥퀸이 연극적인데 비해 후세인 살라얀은 사색적인 디자이너이며, 맥퀸이 거칠고 도발적이라면, 살라얀은 엄격하고 건축적이다. 복식은 몸을 둘러싼 친밀한 건축이라 할 때, 공간은 살라얀의 비전의 중심이다. “나는 건축, 과학 혹은 자연과 같이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신체의 역할을 고찰하여, 이 접근방법을 복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연구결과를 디자인으로 바꾸려는 실험을 한다”²²⁾라는 그의 말에서 살라얀이 신체와 건축, 조각에 관심이 많은 개념론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살라얀과 같은 런던 출신의 디자이너 아카디우스(Arkadius)는 소재 보다는 볼륨을 통해 몸을 구형의 형태로 둘러싸거나, 몸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새장과 같은 장치로 몸을 에워싼다. 아카디우스는 볼륨의 사용을 통해 전통적인 복식의 비례를 재해석했는데, 건축가가 빌딩을 짓는데 사용하는 디자인 테크닉을 복식에 적용함으로써 의복을 복잡한 3차원의 형태로 만들었다(그림 10).

2. 탈신체적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가치

서구의 전통적인 의복구성의 대상으로서의 몸의 3차원적 인식을 부정함에 따라 발생한 탈신체화 경향의 디자인은 몸을 초월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복식을 하나의 표현의 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이러한 복식에서는 인체의 비례와 구조보다는 디자이너의 조형의지가 중시됨을 알 수 있었다.

추상적이고 건축적인 디자인의 탈신체화 경향의 복식은 형태전환(transformation)을 통해 몸 자체의 인식을 거부하는데, 형태 전환은 미술가가 대상의 불변하는 실존 상태 그 이상을 표현코자 할 때는 언제나 뒤따르는 불가결한 것으로²³⁾ 복식에서는 특히 포스트모던 패션에서 고정관념을 해체하기 위해 전통적인 복식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는 경우에 자주 등장한다.

형태의 전환을 피하는 복식은 전통적인 재단과 비례를 피하여, 몸의 윤곽선을 따르고 수직적인 축에 순응해야 한다는 전제를 벗어난다. 이러한 복식은 몸의 형태를 변형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태를 넘어서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발렌시아가의 '양배추' 드레스, 맥퀸, 살라얀, 빅터 & 로프의 최근 컬렉션에서와 같이 복식을 동물, 식물, 침구, 건축물 등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거나, 실재하는 어떠한 형상과도 연관을 갖지 않는 추상적인 조형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탈신체적 디자인은 신체의 특징을 무시하고 복식 자체의 조각적인, 혹은 건축적인 형태만을 강조한다. 복식과 몸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보다는, 몸의 전통적인 현존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복식과 연관된 흔적을 허구적으로 창조하는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복식은 독립적인 구조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전환되며, 착용에 따른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 형태의 영구한 안전성을 가진다. 더불어 대부분 몸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초월하여, 주변의 3차원적 공간을 모두 표현의 대상으로 삼는 초(超)공간성을 추구한다.

사람이나 풍경의 닳은꼴을 드러내지 않는 추상 미술의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디테일을 무시하고 기하학적이고 건축적인 형태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화된 복식을 통해 인체의 형태를 인식 또는 상상하기는 어렵다. 복식과 몸과의 일치 자체가 복식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전제할 때, 이러한 복식에서는 복식의 실용성과 기능성이 배제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복식의 구조는 착용자의 신체구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식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볼 때, 복식에 있어서 합목적성은 기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탈신체적인 복식은 복식의 각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기도는 비분절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인체 부위별 기능과 형태가 무시되며, 인체의 동작이 최우선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복식의 기능 및 복식의 착용을 통한 신체의 기능을 박탈하는 탈기능을 제시하여, 전통적인 복식에서의 기표와 기의는 불일치를 이루게 된다.

대부분의 패션 디자인은 다수로 제작되지만, 이제까지 고찰한 디자인의 사례들은 대부분 한 벌만 만들어지거나 전시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종종 너무 난해해서 산업적으로 생산되기 어렵거나, 의도적으로 시적인 외관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된다. 탈신체화의 조형성을 나타내는 복식의 대상은 상상력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몸으로, 몸의 경계에 대한 개념은 무시되고 확장되어, 복식과 몸은 디자이너의 조형의지를 담은 의식확장의 장으로 표현된다.

이제까지 고찰한 탈신체적 디자인은 몸에 대한 재현의 유기적 정확성에서 벗어나며 복식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개념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현의 대상으로서의 몸에서의 이탈은 기하학적 형태에 이르게 하며, 이와 같은 자극이 야기하는 이질성은 긴장감을 초래하고 시각의 장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준다. 즉, 몸과 복식 자체의 고유한 조화나 균형이나 질서만을 가지고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긴장감이 탈신체적 디자인에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의 형태 분석을 위해 '몸'이라는 해석기준을 선택하여 복식에 표현된 탈신체적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아방가르드나 오프 쿠튀르 패션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탈신체적 디자인의 특징을 규명하는 새로운 시각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전통적인 복식의 기능에서 떠나 몸으로부터 추상화 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허리를 중심으로 하는 복식형태를 이끌던 코르셋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복식과 몸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소재와 의복구성법의 발전과 예술적인 발상과의 호흡에 힘입어 조형의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복식 형태와 착용 방식을 부정하는 새로운 의미의 표현과 전달방식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 두드러진 현상으로 인체와 유리되어 고정된 공간을 형성하는 복식에서의 탈신체화 경향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신체화를 몸의 형태를 변형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태를 넘어서기를 시도하는 단계로 분석하였다. 몸의 형태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조형물로써 몸의 부재를 상징하는 탈신체적 복식은 몸의 어떠한 사실성과도 무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탈신체적 디자인의 조형성은 사물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거나, 실재하는 어떠한 형상과도 연관을 갖지 않는 추상적인 공간성을 나타낸다. 탈신체적 디자인에서 복식은 표현의 장으로 간주되어, 인체의 비례와 구조보다는 디자이너의 조형의지가 중시되는데, 몸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초월하여 주변의 3차원적 공간을 표현의 대상으로 하는 초공간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복식 부분별 몸 부위의 적합성을 해체하는 양상을 띠면서, 복식의 각 부위가 비분절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인체 부위별 기능과 형태가 무시되어 복식의 기능 및 복식을 착용한 신체의 기능이 박탈되면서, 전통적인 서구복식의 기표와 기의는 불일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몸에 대한 장식은 언어와 같이 인간의 특징을 정의하는 요소이므로, 복식으로 장식되고 미화되는 가운데 몸은 문화에 의해 형상화되고 의미가 부여된다. 인간은 복식을 통해 끊임없이 몸의 부분을 드러

내고 감추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몸을 가시화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식은 몸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며, 몸이 새로운 미학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1) Roach & Eicher (1973). *The Visible Self Perspective on Dress*. Prentice-Hall, p. 10.
- 2) Davis, F.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4-15.
- 3) Boyne, Roy & Rattansi, Ali (1992).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 김보현·신명아(역), 한신문화사, p. 262.
- 4)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2. 교문사, pp. 80-95.
- 5) 피종호(편) (2004). 몸의 위기. 까치, p. 50.
- 6) Bell, Quentin (1976). *On Human Finery*. Hogarth Press, p. 19.
- 7) Fukai, Akiko (2005). *Visions of the body 2005*. 전시 카탈로그, 서울시립미술관, p. 114.
- 8) Boultonwood, Anne & Jerrard, Robert (2000). Ambivalence, and its relation to fashion and the body. *Fashion theory*, 4(3), UK: Berg, pp. 314-315.
- 9) *ibid.*, p. 302.
- 10) Derycke, Luc & Van de Veire Sandra (eds.) (1999). *Belgian Fashion Design*. Amsterdam: Ludion, p. 9.
- 11) Quinn, Bradley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Oxford: Berg, p. 209.
- 12) 월간미술(편) (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p. 187.
- 13) 서승미 (2004).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의 텍스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18.
- 14) 위의 책. p. 68.
- 15) Milbank, C. R. (1985). *Couture, The Great Designers*. New York: Stewart, Tabori and Chang, pp. 8-9.
- 16) 김은희.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58.
- 17) Derycke, Luc & Van de Veire, Sandra (eds.). *op. cit.*, p. 104.
- 18) Steele, Valerie (1997). *Fifty Years of Fashion: New Look to Now*.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 163에서 재인용.
- 19) Koda, Harold (2001).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91.
- 20) *ibid.*, p. 41.
- 21) *ibid.*, p. 89.
- 22) 장애인. Hussein Chalayan의 실험적 디자인. 복식 52(5), p. 94에서 재인용.
- 23) Arnheim, Rudolf (1982).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홍성사, p. 149.